아드보카트 감독 "최종 엔트리 99% 완성"

나머지 1%는 누굴까?

송종국·차두리 중 한명될듯
안정환·이을용 합류 확정적

딕 아드보카트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달 30일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초청 대표팀 코칭스태프 만찬에서는 "99%가 완성됐다. 이제 1%만 남았다"며 사실상 최종 엔트리 선정작업이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골키퍼 3명을 제외하고 각 포지션별 2명씩의 선수를 선발해 최종 엔트리 23명을 구성할 것이며 깜짝 발탁은 없다" 고 밝혔다.

포지션별 2명씩에 초점을 맞추면 공격수 6명의 경우 중앙 원톱에는 안정환과 조재진, 윙 포워드로는 이천수, 박주영, 정경호, 설기현의 합류가 유력하다.

미드필더에는 박지성과 이을용, 김남일, 이호가 확정적이다.

나머지 두 자리의 주인은 김두현과 김정우, 백지훈 중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왼쪽 윙백 이영표와 김동진, 오른쪽 윙백 조원희도 이미 99% 안에는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 수비수에는 최진철, 김진규가 유력하고 김영철, 김상식의 선발 가능성도 높다.

골키퍼의 경우 이운재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김영광, 김용대, 김병지 등이 나머지 2명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렇다면 아드보카트 감독이 고민 중인 나머지 1%는 누구일까?

현 대표팀의 '포지션별 수급 불균형 상황'을 감안하면 2002 한·일 월드컵 4강 주역 차두리와 송종국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송종국의 경우 오른쪽 윙백에 확실한 대체 요원은 없지만 오랜 부상 공백 때문에 제 기량을 100% 보여줄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하지만 한·일 월드컵에서 7경기 전 경기를 뛴 송종국의 경험 또한 무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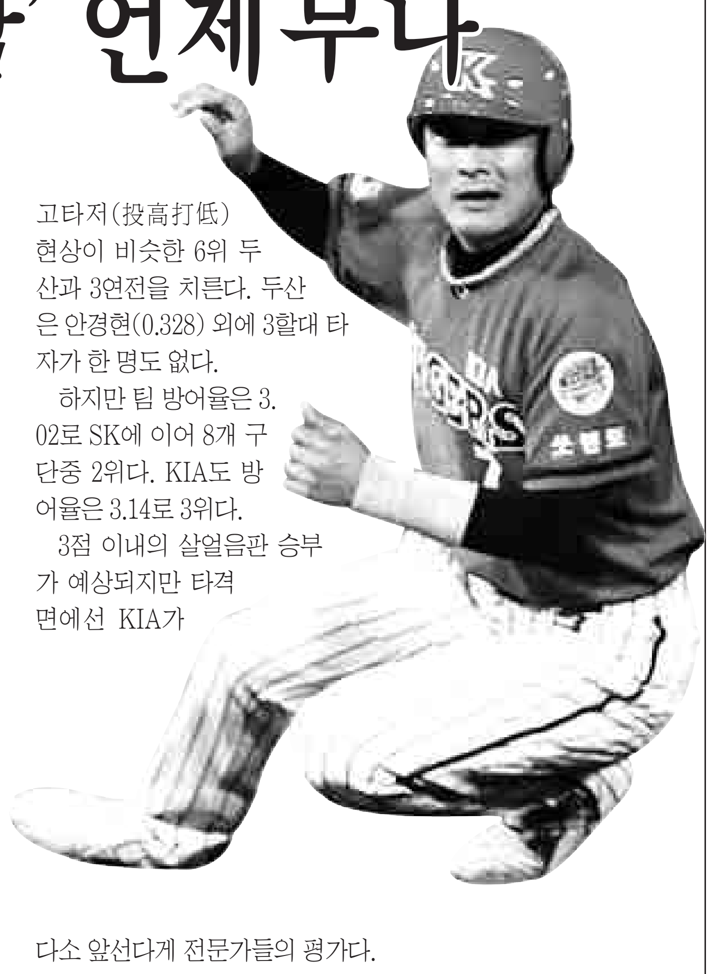
1일 출국한 아드보카트 감독은 4일 오전 3시(이하 한국시간) 뒤스부르크-브레멘전과 6일 오후 10시30분 도르트문트-프랑크푸르트전을 관전할 예정이다.

최종 엔트리 발표(11일)를 앞둔 아드보카트 감독이 선수 점검의 마지막 시간을 차두리 경기 관전에 할애한 것은 의미가 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종범이 바람' 언제부나

1할대 타율…팀 타선도 침체
KIA, 두산전서 새바람 기대

■ 금주의 프로야구



'바람아 불어라'

'바람의 아들' 이종범(사진)이 조용하다. WBC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의 후유증 때문일까.

이종범은 "모든 컨디션이 정상이고 좋은데 잘 안 맞는다" 고 말한다.

WBC 이후 귀국 인터뷰에서 "팀 맏형으로서 후배들과 최선을 다해 KIA의 명가 재건에 앞장 서겠다" 고 약속했던 그다.

하지만 시즌 돌입 후 17경기를 소화했지만 계속되는 빈타 때문에 체면이 말이 아니다.

KIA 서정환 감독도 "(이)종범이의 스윙 속도가 예전보다 좀 늦어진 것 같다. 하지만 시즌 초반이고 워낙 감각이 있는 선수라서 곧 타격감을 되찾을 것" 이라며 말을 아꼈다.

1번타자 이종범이 1할타로 헤매다보니 2번 이용규(0.345)의 안타 행렬도 득점타로 쉽게 연결되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장성호(0.206), 서브넥(0.222), 심재학(0.200) 등 중심 타선도 '동맥경화' 에 걸린 듯 꽉 막혀있다.

그나마 선발 투수진이 잘 던져 5할대 승률은 유지하고 있지만, 팀 타선이 워낙 침체되다보니 투수들마저 흔들리는 도미노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이종범의 타격감 회복과 함께 KIA 타선의 집중력이 절실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5위인 KIA는 다행히 이번주초(2일~4일) 잠실에서 투고타저(投高打低) 현상이 비슷한 6위 두산과 3연전을 치른다. 두산은 안경현(0.328) 외에 3할대 타자가 한 명도 없다.

하지만 팀 방어율은 3.02로 SK에 이어 8개 구단중 2위다. KIA도 방어율은 3.14로 3위다.

3점 이내의 살얼음판 승부가 예상되지만 타격면에선 KIA가 다소 앞선다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KIA는 2일 두산과의 대결에 '특급 에이스' 김진우를 올려 초반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3위를 질주중인 한화와의 광주 홈 3연전(5일~7일)은 시즌 초반 최절정의 완벽투를 뽐내는 류현진(3승)과 문동환(3승 1패)의 공략이 승부처다. 한화도 김태균(0.325)과 데이비스(0.301) 외엔 별다른 방망이가 없다.

KIA가 주초 3연전에서 '웅담' 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뒤 홈에서 독수리의 날개를 꺾고 선두권 재 진입에 성공할 지 기대되는 한 주다. /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이영표 풀타임 출전
수비 미흡…평점 6

토트햄, 볼튼에 1대0 승

'초롱이' 이영표(29·토트햄 핫스퍼)가 수비에서 연결이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국 스포츠전문매체 '스카이스포츠'는 1일(이하 한국시간) 볼튼 원더러스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005~2006 시즌 37차전에서 왼쪽 윙백으로 풀타임을 뛴 이영표에게 '수비에서 연결이 약했다(Weak link in defence)'는 평가와 함께 평점 6을 매겼다.

이영표는 이날 볼튼이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여 공격 가담을 자제하면서 수비에 치중했다.

토트햄에서는 결승골을 터트린 아론 레논이 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골키퍼 폴 로빈슨을 비롯한 마이클 도슨, 마이클 캐릭 등이 8점으로 뒤를 이었다.

볼튼에서는 오른쪽 공격을 맡아 경기 내내 이영표를 괴롭힌 케빈 데이비스가 최고 평점인 9점을 받았고, 골대를 맞히는 위협적인 슈팅을 날리기도 한 일본 대표팀 미드필더 나카타 히데토시는 '나아지고 있다(improving)'는 평가와 더불어 7점을 얻었다.

한편 리그 4위 토트햄은 이날 후반 15분 아론 레논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토트햄 핫스퍼의 이영표가 1일 자정 볼튼 원더러스와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005~2006 시즌 37차전에서 볼튼 원더러스의 스트라이커 리카르도 바즈 테의 공을 빼앗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스포츠중계

2일(화)

▲메이저리그〈뉴욕Y-보스턴〉(07 : 55·Xports), 〈샌디에이고-샌프란시스코〉(11 : 05·X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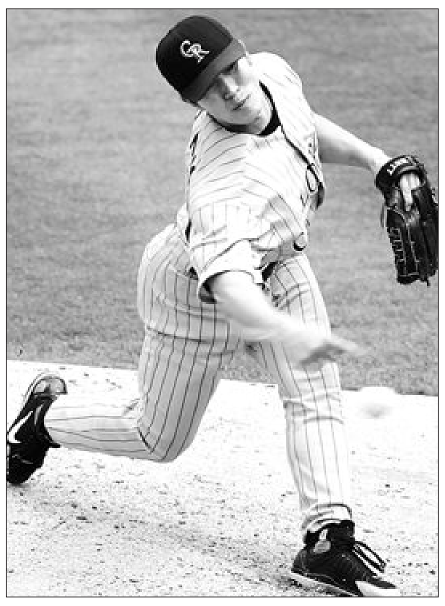
▲국제 사이클(14 : 00·KBS2)

▲전국대학배구연맹전(14 : 10·KBS1)

▲일본 프로야구〈한신-요미우리〉(18 : 00·Xports)

▲프로야구〈두산-KIA〉(18 : 00·SBS스포츠), 〈SK-삼성〉(18 : 00·KBS SKY SPORTS), 〈현대-롯데〉(18 : 30·MBC ESPN)

병현 9K 첫승
찬호 2승 실패



김병현(콜로라도 로키스·사진)과 박찬호(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1일 나란히 선발출격했지만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병현은 부상 복귀 무대에서 탈삼진 신기록을 세우며 시즌 첫 승을 신고한 반면 박찬호는 친정팀을 상대로 대량 실점하며 시즌 2승 사냥에 실패했다.

김병현은 이날 마이애미 돌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플로리다 말린스와 원정경기에 올 시즌 첫 선발 등판, 6.2이닝 동안 삼진을 무려 9개나 솎아내며 5안타 1실점으로 막고 3-1 승리를 이끌었다.

탈삼진 9개는 지난 해 6월13일 디트로이트전에서 작성했던 8개를 넘어선 자신의 한 경기 최다 기록이다.

반면 박찬호는 LA 다저스와 홈경기에서 시즌 2승 사냥을 노렸으나 5이닝 홈런 1개 등 6안타와 3볼넷 5실점으로 부진했다. 최고 구속은 151㎞까지 찍혔고 탈삼진 5개를 기록했다. 총 투구수 91개 중 스트라이크는 61개. 지난 달 25일 애리조나전 8⅔이닝 4실점으로 아깝게 완투를 놓친데 이어 승수를 추가하지 못했다.

/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무명' 크리스 코치
PGA 생애 첫 우승

크리스 코치(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취리히클래식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며 무명의 설움을 씻어냈다.

코치는 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잉글리시턴골프장(파72·7천7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 8개에 보기 1개를 곁들이며 7언더파 65타를 쳐 우승, 108만달러의 상금을 거머쥐었다.

필 미켈슨(미국)은 14번홀까지 5타를 줄이며 역전 우승을 바라보았지만 15번홀(파5)에서 치명적인 더블보기를 범하며 12언더파 276타, 공동 15위로 주저 앉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